

광주 클럽 불법증축 등 19개 업소 적발

광주시 불법건축물 특별대책단 합동점검

불법증축 8건 · 용도변경 8건 · 위생불량 9건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 행정처분 예정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광주시 불법건축물 특별대책단이 합동 일제 점검을 실시해 총 19곳의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지난달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 특별대책단은 지난달 30일 손님이 업소에서 춤을 추는 감성주점(클럽)과 유사한 시설 3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해 19개 업소에서 불법

건축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분야별 위반 내용은 불법증축 8건, 불법용도변경 8건, 소방 8건, 위생분야 9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구 8건, 북구 3건, 광산구 8건이다.

자치단체는 위반 업소에 대해 1차로 시정명령을 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별대책단 점검 인원은 광주시청과 5개 구청 공무원 40명, 소방과 경찰 인력 10명으로 구성했다.

특별대책단이 업소의 영업시간을 몰라 헛걸음을 하거나 업주가 단속을 회하는 경우도 있어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자치단체는 지난 27일 치평동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해 불법건축물 특별대책단을 구성했으며 오는 9일까지 붕괴사고가 난 클럽과 유사한 유혹주점 · 감성주점 81곳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한다. 이어 오는 11월까지 클럽 유사업소 1400곳을 대상으로 2·3차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서은홍 기자

모텔로 남성 유인 강도짓 10대 8명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17)군 등 10대 8명을 불검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30분께 광주 북구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을 협박·폭행해 현금 50만 원과 스마트폰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생활·유혹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행각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60대 남성 실종 7일만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1주일 전 실종된 60대 남성이 전북 전주에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31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전북 전주시 평화동 한 야산에서 A(62)씨가 수색 중이던 경찰과 119산악구조대에 의해 발견됐다.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9시 평화동에 있는 자택에서 나간 뒤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평화동의 한 야산으로 향한 것을 확인, 경찰과 소방은 전날부터 70여명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평소 A씨는 뇌졸중으로 치료를 받은 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평화동 야산에 자주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등산을 하던 중 실족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 소령, 10대 여학생에 돈 주고 성관계

경북북부 지역의 현역 육군 간부가 10대 여학생에게 돈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에 불검아 됐다.

특히 이 간부는 만남을 거부하자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경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A(35) 소령을 검거해 신병을 군 헌병에 넘겼다.

A소령은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B(16)양에게 10만~15만원씩 총 60여만원을 건네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소령은 만남을 거부하는 B양에게 "지금까지 준 돈을 다시 돌려 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소령은 SNS를 통해 B양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군 헌병대는 A소령을 상대로 범행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흥기로 80대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자수

말다툼을 벌이다가 80대 노모를 살해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자수,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어머니를 살해한 A(55)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5분께 대전시 동구 관암동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 중 흥기로 어머니(85)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경찰서에 찾아가 "집안 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흥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70대 운전자 초등학교 돌진...동승자 사망

7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로 돌진해 동승자 1명이 숨졌다.

지난달 3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9분 김모(72)씨가 운전한 승용차가 서초구 방배동 서래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돌진, 학교 진입로에 있던 구조물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친구 사이인 여성 동승자 민모(76)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김씨는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차량 전면부는 크게 파손됐으나 사고 당시 주변에 행인이 없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폭염에 양산과 모자는 필수 지난날 31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사거리에 설치된 그늘막 주변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여수 돌산대교 아래 조개 껍질 여전히 방치 중

여수시 돌산대교 아래 바닷가에 폐바지락 껍데기 등 조개껍질 무더기가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후속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여수시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돌산대교 인근 해안가에 10여 년 전부터 폐바지락 껍질이 바다에 버려지면서 100~200m 길이의 해안선을 뒤덮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은 조개껍질이 버려지기 전 몽돌밭과 모래밭이었으나 버려진 폐바지락 껍데기가 쌓이면서 육자부는 물론 바닷속까지 무더기로 잠식해 관광 자원과 약취 등을 유발하고 있다.

대교동 마을 주민들은 조개껍데기가 쌓이기 전에는 바닷물이 빠진 몽돌밭에서 나뭇잎을 잡을 수 있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약취와 오염물 폐기물로 인해 물이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악화했다.

이곳의 폐바지락은 해안가의 소규모 조개류 가공업체에서 10여 년 전부터 버린 것이 쌓인 것으로 여수시는 파악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수년간 버려진 바지락 껍질 부스러기가 대량으로 쌓여 여름철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개 가공 업체 관계자는 알맹이를 켜 버리려 껍질을 일부 버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 폐기물인지 여부는 자세히 몰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수시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바지락 껍질 무단 투기 지적 후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20여 일이 지나도록 제거 통보의 후속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민인 김 모(53) 씨는 "돌산대교를 지나면서 아래쪽을 바라볼 때 조그만 예쁜 백사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10여 년간 쌓인 버려진 조개껍데기였다는 말을 듣고 경악했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나주혁신도시 광전노협 "SRF갈등 해결 기관장들이 나서야"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16개 공공기관장들이 지역 최대 현안인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싼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광전노협은 "공공기관장협의회가 지난달 11일 협의회 의제를 검토하면서 나주 SRF를 저지해 달라는 기관장들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광전노협이 요구하고 빛가람동 주민과 기관 종사자들이 그토록 여망하고 있는 나주 SRF 문제에 대해 공공기관장들이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다"며 "기관장 회의에서 나주SRF 문제를 의제로 다루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장들이 직원들의 보호 의무를 저

버린 무책임한 행동임이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광전노협은 이어 "나주 SRF 문제는 기관 종사자의 97%가 반대하고, 94.6%가 기관장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기관장협의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직원들을 반 강제로 이주시켜 놓고도 이주한 직원들의 삶에 전혀 관심 없는 기관장들이 협의회를 개최한다면 광전노협은 반드시 회의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광전노협의 강경한 입장 표명은 SRF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연료 전환 방식에 따른 손실보존 비용 부

담 주체를 정하지 못하고 해체 위기를 맞고 있는 데 있다.

SRF발전소 운영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달 5일 열린 자사 긴급이사회에서 100%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전환에 따른 손실보존 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합의문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 후 난방공사가 거버넌스 회의에서 합의문 작성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오는 7일 오후 1시30분에 1차 회의를 열고 거버넌스 각 주체들이 해법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각 주체들이 현실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거버넌스가 결국 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정환 기자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